



NH농협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농산물 꾸러미 나눔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농협 창립6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 KTA와 종합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맞손 하나은행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KTA)와 종합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TA 및 KTA 소속 회원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금융 컨설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푸드트럭 소상공인에 디자인 선물 IBK기업은행은 'IBK희망디자인' 사업을 통해 Pro Chef(세우튀김), 건다방(커피), Mr. 팔봉이(커피), Sweet Jin(츄러스) 등 4개 푸드트럭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

-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의료기기연구단장 김석주 △기획조정본부장 진병문 △경영지원본부장 조현길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중양노동위원회 상

부음

- ▲최영자씨 별세, 윤종덕(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윤종수(LG생활건강 HDB, SCM 팀장)·윤은주 씨 모친상, 강선옥·최라윤(유니버설 발레 아카데미)시모상, 공희택(前 워커히, SK네트웍스 본부장)빙모상=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13일 12시 19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14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06 ▲유종순(헬레나)씨 별세, 이우중(경기아트센터 사장)씨 모친상 = 12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860-3500 ▲신경숙씨 별세, 이두희(청주 이즈치과 원장)씨 모친상 = 12일, 청주 효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청주 목련공원, 043-221-4004 ▲김인희씨 별세, 윤병우(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씨 모친상 =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2-2072-2011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외사법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데, 이러한 퇴임이사에 대해서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기만료로 퇴임했으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이사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퇴임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총회가 부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이사회해임청구소송 역시 불가할 것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주주의 이사회해임청구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

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위 하급심 판결은 퇴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해임청구의 소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권자는 총회소집권을 행사해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임이사에 대한 이사회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퇴임이사에 대한 이사회해임청구소송 역시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KT&G, 해양보호·생태계 복원 중요성 알린다

상상마당 부산서 오는 18일까지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전시회

KT&G가 오는 18일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주관하고, KT&G와 '해양환경공단'이 후원해 마련됐다.

상상마당 부산 4~5층 갤러리에서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오염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물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총 10명의 작가가 출품한 회화, 조각, 영상, 설치미술 등 총 3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KT&G가 오는 18일까지 상상마당 부산에서 해양 환경 보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왼쪽부터 네 번째), 송복영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왼쪽부터 다섯번째), 홍선옥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왼쪽부터 여섯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촬영한 전시회 개최 기념 사진. /KT&G

관람객들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체험 교육, 아트 체험 등도 진행된다.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중 정화활동 중에 촬영한 바다 속 생태계와 해양 쓰레기 실태를 담은 영상과 사진 59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KT&G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T&G는 지난 5월 해양

환경공단과 시민단체인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해양 쓰레기 투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부산·경남지역의 해변 쓰레기 수거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각 회차마다 페트병, 폐그물, 담배꽂이 등 중점 수거 품목을 선정해 정화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해양 보호와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해양 정화 활동을 지속하고, 친환경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건축미' 국제적으로 인정

레드닷 디자인·WAN 어워드 아름다운 건축물로 본상 수상

갤러리아백화점은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세계적인 건축 정보 매체인 'WAN의 어워드'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 국제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 IDEA,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제품 ▲컨셉트 등 3개 부문에서



갤러리아백화점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히는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세계적인 건축 정보 매체인 'WAN(World Architecture News)'의 어워드'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갤러리아백화점

디자인의 우수성·창의성·기능성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 타임월드는 글로벌 건축 관련 뉴스와 정보가 매달 1000만건 이상 교류되는 영국 대표 건축 매체인 W AN이 주최하는 어워드에서 파사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수상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지난해 12월, 약 1년간의 외관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도심 속 조각품'으로 거듭났다.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미적 건축물로 꼽히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새롭게 선보인 외관 디자인은 '어반 블룸' 콘셉트로 자연을 모티브로 한 꽃의 군집 형태를 표현했다. 이를 위해 외관을 각기 다른 5700여 개의 '꽃 모양 모듈'을 설치했다. 각각의 꽃 모듈들은 야간에 중심부 조명을 밝혀 타임월드 외관 전체를 '화려한 빛의 미디어파사드 건축물'로 변신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공영쇼핑 조성호 대표이사 선임



공영쇼핑이신임 대표이사로 조성호 전 NS홈쇼핑 마케팅총괄 전무(사진)를 선임했다. 12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9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성호 대표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조 신임 대표이사는 이튿날인 지난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공영쇼핑은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임대표이사 공모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주총을 통해 새 대표를 최종 결정했다.

조 신임 대표는 20년간 홈쇼핑 임원으로 재직한 홈쇼핑·마케팅 분야 전문가다. /김승호 기자 bada@